



▶ 알래스카의 12가지 비밀

🖨️ 프린트하기

이기열 대리(생명,미국)

Prologue - 미지의 땅, 알래스카



알래스카는 크게 5개의 구-Borough-로 구성되 있다

드디어 이번 지역연구를 통해 그동안 마음속에 무겁게 자리했던 커다란 숙제를 한가지 해 낸 것 같다. 필자는 금번 지역연구를 통해 서부 지역과 중부 내륙 일부를 필자의 나와바리(?)로 만들면서, 당초 계획했던 지역연구의 60% 정도를 완료했다. 나머지는 남은 4개월여 동안 찬찬히 돌아보면 될 것이다.

금번 지역연구는 미국이 자랑하는 자연자원의 보고인 알래스카를 돌아보며 미국의 지방 주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개발정책 분석 및 거대 수익창출 요건들의 인위적인 요소들은 과연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춰 살펴 보았다.

이번 칼럼은 기후적인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알래스카'의 무궁무진한 자연자원(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을 개발하기 위한 알래스카주의 끊임없는 노력과 그로인해 입게 될 자연 생태계의 훼손을 우려하는 미국 회 상원의원들의 반대여론과의 마찰로 인해 그 개발이 가속화 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을 짚어보면서, 우리나라 또한 알래스카의 제 2교역국으로써 원유, 석탄, 목재, 수산물 그리고 광물 등을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가능하다면 알래스카 주정부의 위와같은 노력들이 향후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예측해 보고자 한다.

알래스카에 대한 12가지 재미있는 사실

Twelve Facts of Alaska

우선 알래스카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이곳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과 사실들을 12가지로 정리해 보았다.

- ① 미국에서 생산되는 총 수산물의 50%가 알래스카에서 생산되고 있다.
- ② 알래스카에는 호수가 자그마치 3백만개나 있다.
- ③ 알래스카에는 화산이 29개 있다.
- ④ 알래스카 북쪽에 위치한 작은 마을 '베로우-Barrow-'는 미국의 최북단 마을이다.
- ⑤ '알래스카'라는 명칭은 1741년 당시 러시아 황제의 의뢰를 받았던 덴마크의 탐험가 '베링'이 이 지역을 발견했을 당시 인디언들이 사용했던 용어(알류트어)인 '알리에스카-Alyeska'에서 유래됐는데, 그 의미는 '거대한 땅'-The Great Land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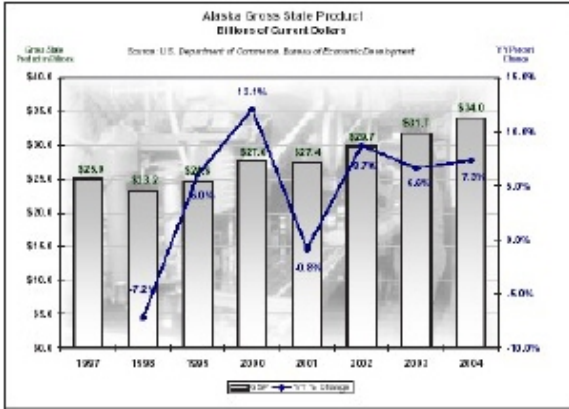
- ⑥ 미국은 1867년 러시아로부터 720만불(에이커당 2센트, 1에이커=1,224평)구입했고, 1959년 1월 3일 공식적으로 미국의 49번째 주가 되었다.
- ⑦ 알래스카는 미국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주로, 미국 본토의 1/5이며, 텍사스 면적의 2배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작은 주인 로드아일랜드주의 425배나 된다.
- ⑧ 미국 50개 주 중에서 알래스카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유일한 주이다.(위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대서양,태평양,베링해를 끼고 있다.)
- ⑨ 무게가 50Kg 이상 되는 King 연어가 이곳 알래스카에서 잡힌다.
- ⑩ 알래스카 연어 잡이 배의 길이는 평균 37feet(약 11미터)이다.
- ⑪ 알래스카 인구는 626,932명(2005년 1월 기준)인데, 이곳에서 서식하고 있는 곰의 숫자는 사람 21명당 한 마리 셈인 29,800마리로 추산하고 있다.
- ⑫ 알래스카주의 애칭은 'The Last Frontier' 또는 'Land of the Midnight Sun'이다.

알래스카의 GSP 분석

아래는 상기에 명시한 개괄적인 정보 외에 경제적 측면에서 알래스

학교 다닐 때 공부한 이후로 한번도 써먹어 보질 못해 이젠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져 가는 경제용어들을 어렵게 끄집어 내 기억을 더듬어 보

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이며, 이 자료는 알래스카 주정부가 작성한 '2005년 알래스카 경제보고서-Alaska Economic Performance Report 2005'에서 발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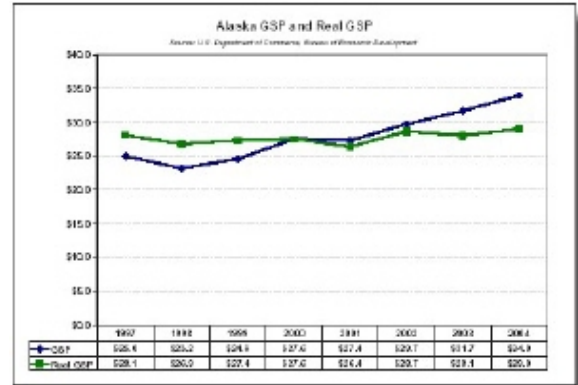


알래스카의 연도별 GSP 현황

각 주가 하나의 독립된 국가처럼 운영되고 있는 미국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Gross Domestic Product)처럼 'GSP-Gross State Product'를 각 주마다 별도로 산출하고 있다. 한 국가의 연간 Economic Performance를 가능하게 대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지표 중의 하나인 이 GSP현황을 보면 알래스카는 '98년과 '01년에 소폭의 하락이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04년에는 GSP가 \$34 billion에 이룸으로써 '03년보다 7.3% 성장했으며, 2000년 이후로 산출하면 '04년까지 총 23%의 성장세를 유지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면 우리가 한 국가의 경제성장 추이를 분석할 때 놓쳐서는 안되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물가변동률'이기 때문에 상기에 명시한 알래스카의 GSP현황이 과연 명목지수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그곳의 경제가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Inflation을 반영한 실질GSP(Real GSP)현황을 들여다 봤는데, 기대했던 대로 알래스카는 2000년까지 매년 3.4%의 성장률을 기록하다가 그후로는 5.4%의 Real GSP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었다.

일인당 GSP를 산출해 봐도 위에 나온 인구수(약 630,000명)로 '04년 GSP(\$34,000,000,000)를 나눠보면 \$53,970이 나오는데, 이 수치면 세계에서 1인당 GDP가 가장 높은 룩셈부르크(\$46,000)를 훨씬 앞지르는 금액이니,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긍정적인 신호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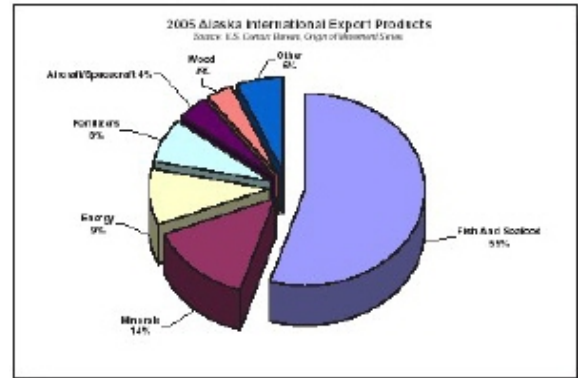


알래스카의 GSP-Gross State Product-와 Real GSP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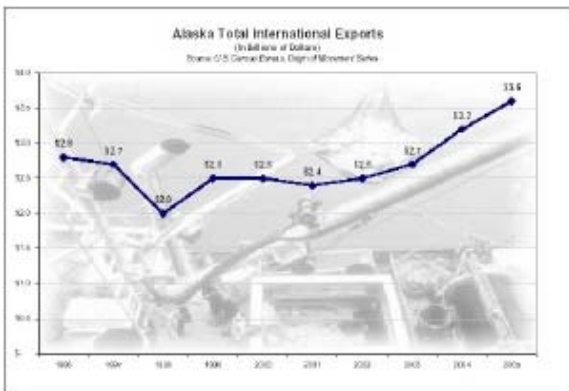
알래스카의 수출입 현황 분석

아래 도표를 보면 지난 '96년부터 '05년까지 해외에 수출한 수출총액을 파악 할 수 있는데, '98년에 해외 수출이 주춤했던 이유는 알래스카의 수출품목 중 최대 Portion을 차지하고 있는 건 Fish and Seafood로써, 그중에서도 단연 '연어'가 일등공신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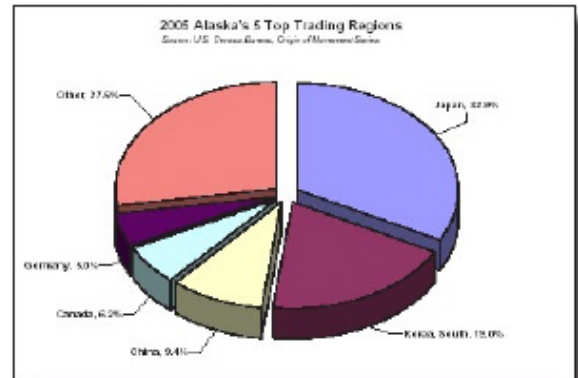
그런데 캐나다(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 자연산 연어가 아닌 양식을 통해 연어를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자연산 연어를 어획해 판매하는 알래스카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게 되었다. 하지만 바로 그 다음해부터 다시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섰는데,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양식 연어에는 자연산연어보다 인체에 해로운 발암물질(다이옥신)이 10배정도 더 함유되어 있다는 공식 연구결과가 발표됐기 때문이다. (근거: 과학잡지 '사이언스-Science-' '06.10.8주)



수출품목 중 어패류가 55%를 차지하고 있다



알래스카 해외 수출현황



서두에 밝혔듯이 우리나라가 일본에 이어 두 번째 수입 大國이다

마지막으로 요즘 알래스카 주정부와 미국 국회(엄밀히 말하면 상원의원)사이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오일-Crude Oil-에 대해서 언급하려 한다. 아래 그림은 알래스카 북부의 'North Slope'라 불리는 지역으로써 현재 오일과 천연가스 생산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곳(지도에 빨간 점으로 표시된 곳들)과 석유와 천연가스가 다양 매장된 것으로 조사된 정확한 매장지역을 찾아내기 위해 분주히 탐험하고 있는 곳(노란점들)이다.

문제는 아래 지도의 우측 상단에 보이는 노란색 테두리로 둘러싸인 지역인데, 이 지역은 지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난 25년간 생태계의 보존을 위해 미국 국회에서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보존해 오고 있는 곳으로써, 이곳에 약 100억 배럴(1배럴=158.99리터)의 석유가 매장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알래스카주정부는 어떻게든 그 석유를 개발하기 위해 미국 국회를 설득하고 있고, 또한 그들의 제 1, 2, 3교역국인 일본, 한국, 중국등을 돌아다니며 투자유치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것은 지난 10월 16일 알래스카의 로렌 리만 부지사가 한국을 방문해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에너지 세미나에서 발표했던 "Alaska Energy Opportunities"의 내용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내용이 너무 길어서 이 칼럼에 다 실을 수는 없지만, 서두에 그간 한국과 알래스카와의 우호적인 무역교류에 대해 감사해하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미국 최대의 석유 산유주로서 매년 미국에서 소비되는 석유 총량의 약 20%에 달하는 석유를 공급해 오고 있는 점과, 37조 Cubic feet의 천연가스(이는 미국 전체에 매장된 있는 가스의 13%를 차지함), 그리고 155십억톤의 석탄(미국 총 매장량의 50%를 의미)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고 또한 위에서 언급했던 야생동물 보호구역을 어떻게든 해지시켜 그곳에 매장된 것으로 파악되는 어마어마한 양의 석유 또한 개발할 수 있도록 미 국회로부터 승낙을 받아낼 테니, 부디 석유 개발 사업에 동참해 주기를 강력히 요청하는 내용이 주요 내용이었다.

로렌 리만 부지사에게 의하면 이미 이 안건에 대해 미 국회의 당대표들과 총 100명중 58명의 상원의원들이 이 개발계획을 지지하고 있으나, 소위 'Filibuster-의사진행방해'라 불리는 법적 제한권을 이용해 소수의 상원의원들이 이 안건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알래스카의 주요 석유개발 지역



로렌리만 알래스카 주 부지사

알래스카 자원개발의 明暗

알래스카 주정부에서 우리나라에 위와같이 석유개발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는데는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석유 시추능력이 세계적 수준이기 때문일 것이다. 전 세계에서 미국, 영국, 일본, 한국 이 4개 국가만이 시추선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우리나라의 기술력은 과히 세계 탑 수준이라 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 처럼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특히나 세계의 경제 상황에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Oil Price는 생산없이 수입에만 100% 의존해야 하는 우리로써는 크나큰 부담요인이 아닐 수 없다.

자, 그럼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보다 안정적인 금액과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은 분명 알래스카 주정부와 합작 개발을 하든, 단독 개발을 하든 위에서 설명한 미지의 땅에 묻혀 있는 100억배럴의 석유를 찾아내 지난 2003년 베트남에서 성공했던 것처럼 알래스카로부터 생산원유 전량을 수입할 수 있는 우선권을 갖게 될 수만 있다면 우리나라는 보다 안정적인 물가를 유지하면서 국력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크나큰 Risk를 떠안아야 한다. 바로 기후변화다. 그곳은 북극에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너무 추워서 아무리 길게 잡아도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1년 중 단 6개월 밖에 시추작업을 할 수 없다는 리스크가 있다. 독자들께서도 알고 있듯이 '기계'라는 것이 꾸준히 사용을 해야만 별 고장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6개월동안 작업을 하지 못한채 방치해 뒀다가 다시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손실요인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또한 언제 불어닥칠지 모르는 한파와 기상이변 또한 잠재하는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투자 대비 수익이 의문시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원유 도입량은 년 평균 7억 배럴 정도다. 앞서 밝혔던 베트남 15-1광구에 매장된 석유는 대략 4억 배럴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니, 1년에 7억 배럴을 소화해 내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양이다. 때문에 우리는 그간 여러번 당했던 중동이나 캐나다 미국 등의 '기름값 장난'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또 다른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과연 알래스카가 그 해답이 될 수 있을까?

Epilogue -

광활한 대지 아래 잠자는 자원

필자는 금번 지역연구의 첫 번째 목적지로 '알래스카'를 계획하면서 무엇보다 그간 말로만 들었던 '미지의 땅'을 밟아 본다는 사실에 무척이나 흥분했었고, 기대가 컸었다.



10월 중순이었는데도 알래스카는 한 겨울이었다

물론 직접 가서 바라본 알래스카는 진정 자연의 위대함을 느끼기에 충분한 곳이었다. 북미에서 가장 높은 만년 설산인 맥킨리 산, 1m는 족히 되 보이는 자연산 핑크 연어들이 무리를 지어 다녔던 Portage Lake, 1억년 동안 눈이 쌓여 그 무게로 서로 엉겨붙어 만들어진 사파이어 보석보다 더욱 파란 빛을 가진 글레이셔(빙하) 등 이 글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얻는 독자들을 위해서 미지의 땅 '알래스카'에 대한 이색적인 환경과 느낌을 전달하고 싶은 욕심도 있었으나, 결국 그 광활한 대지 아래 잠자고 있는 자연자원 쪽으로 마음이 기울에 이와 같은 칼럼을 쓰게 되었다.

맥킨리 산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디날리국립공원에 있는 '타키나'라는 작은 마을까지 가야하는데, 그곳에서 다시 경비행기를 타야한다. 필자가 예약한 비행기회사에 가보니 1926년에 찍은 글레이셔 사진과 동일한 지역에서 2005년에 찍은 사진이 걸려있었다. 예전에 비해 빙하의 규모가 현저하게 작아져 있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알래스카의 글레이셔 또한 매년 보이지 않게 녹아내리고 있었다. 지역연구 중 건져 올렸던 글레이셔를 들고 밝게 웃었던 기억이 조금 생각해 보니까 '그저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니구나' 라는 씁쓸함이 머금어진다.



호수에 떠 있는 글레이셔를 건져 올린 후